제주대병원

제주대학교병원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박철민
제주의대

1998년 의료 불모지인 제주도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2001년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제주의료원이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전환되어 수련병원으로서의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제주의료원을 기반으로 한 수련 병원은 영세하고 병상수도 적어 늘어난 환자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09년 3월 지금 위치하고 있는 제주시 아라동에 신축병원을 설립하여 새로운 제주대학교병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는 2001년 3월 지병철 교수가 초대과장으로 부임하였고 이후 손영수, 김성엽, 박철민, 심순섭 교수가 부임하여 산부인과 교실의 각 분야별 연구, 교육 및 진료가 체계화되었습니다. 손영수 교수는 2011년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2012년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여 신생 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16년 5월 지병으로 작고하였습니다. 현재 산부인과 교수는 총 6명으로 부인종양 분야에는 김성엽, 박철민, 조안젤라 교수가 있고 산과 분야에 심순섭, 강혜심, 김리나 교수가 있습니다. 6명 교수 모두가 육지에 있는 대형 병원에 못지않은 진료와 수술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인종양분야 교수들은 부인암 수술뿐만 아니라 다빈치 수술을 포함한 고난도 미세침윤수술에 더욱 집중해서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도 그러하겠지만 제주도민들은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울 쪽 병원으로 가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 우리 병원을 선택하는 암 환자 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의 암 환자라도 우리 병원을 선택하여 오게 되면 서울의 대형 병원 못지 않는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육지에 있는 환자들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일부러 비행기 타고 찾아오는 병원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병원 산부인과 부인종양 분야 교수들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복강경수술이 힘든 골반 내 유착이 심각한 심부자궁내막증 환자들, 거대 혹은 다발성 근종 환자들, 자궁 탈출증 환자들의 미세침윤수술을 서울의 대형병원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현재 우리 의과대학 학생은 학년당 40명이고 전공의는 연차당 1-2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전공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2022년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모자병원 진료협약을 맺어 전공의 수련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2021년은 제주대학교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병원 증축을 시작하였고 4년 후에는 대형 병원으로 성장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입을 계획 중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제는 신생 의대 수련병원이 아닌 명실상부한 제주유일의 국립대병원으로 또 제주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25-26일에는 대한부인암중개연구회 춘계심포지엄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부인종양학회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인종양학회 소식지에 우리 병원에 대한 소개의 글을 실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재훈 회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